

릴보이, 우승... '쇼미더머니9'은 어떻게 성공했나

‘쇼미더머니4’ 출연 후 5년 만에 재도전 끝에 우승

2011년 ‘긱스’로 데뷔...멜로디컬·감성적인 요소 등

상업적 대중음악 색 때문에 힙합계서 ‘이단아취급’ 받아

“저는 다이나믹 듀오와 슈프림팀, 에픽하이의 아들이거든요.”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쇼미9)’에서 래퍼 릴보이(29·오승택)가 우승한 일은 힙합계 변화의 상징 중 하나다.

릴보이와 루이가 속한 힙합듀오 ‘긱스’는 지난 2011년 데뷔, ‘오피셜리 미싱 유(Officially Missing You)’ 등을 히트하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멜로디컬하고 감성적인 요소 등 상업적 대중음악 색을 띠고 있다며 힙합계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독보적인 랩 스킬을 보유한 릴보이는 지난 10월 첫 방송한 ‘쇼미더머니9’가 이날 18일 종방할 때까지 부침 없이 안정된 기량을 과시했다.

지난 2015년 ‘쇼미더머니4’ 출연 이후 5년 만에 재도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쇼미더머니9’ 파이널에서 들려준 경연곡 ‘크레딧(CREDIT)’은 릴보이의 장점을 모두 녹여낸 곡이었다. 귀에 감기는 멜로디에 랩 플로우와 발성이 돋보였다.

‘쇼미더머니9’에서 릴보이가 속한 팀의 프로듀서인 자이언티와 기리보이 그리고 대세 힙합가수 엄파까지 피처링으로 가세한 ‘크레딧’은 대중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곡이었다.

“요즘 들어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 / 아끼던 내 신발 색이 바랬으니 / 불과 몇 달 만에 많

은 것이 변했나 봐 / 너는 내게 찾아와서 물어 How you feel / Well I feel love I feel blessed / 과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라는 노랫말은 릴보이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했다.

긱스의 동료 루이는 릴보이 우승 직후 소셜 미디어에 “이 멋진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는 일이란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는 일과 같아서 그들이 노리는 우리의 구멍을 막아내고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잠시 물에 둘러 쉬며 배를 고쳐보는거야. 앞으로도 화이팅 행복하자”고 적었다.

쇼미더머니, 다양성을 품다

릴보이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쇼미더머니9’는 성공적인 시즌으로 평가 받는다.

가장 큰 이유는 릴보이를 비롯 힙합계의 다양성을 포용한 점이다. 특히 개성 강한 래퍼 머쉬베놈이 2위를 차지했다.

대전 출신으로 충청 지역 역량을 끌어안은 머쉬베놈의 랩은 맛깔스럽다. 조선후기 소설을 읽어 주던 낭독가인 전기수(傳奇叟) 같은 품모도 간직한 그가 ‘조선 술(Soul)’을 가지고 있다는 평도 있다.

지난해 ‘쇼미더머니8’에 출연, 플로우와 라임을 중시하는 랩스타일로 주목 받았던 래원은 이번 시즌에 ‘성장 서사’를 썼다.

가사에 별 의미를 담지 않아 평가절하됐던 그는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원슈타인을 제치

고 결승전에 올라 주목 받았다.

스윙스는 4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래퍼다. 그가 이번 시즌에 경연자로 출연한 건, 쉽게 예상하기 힘든 행보였다.

‘쇼미더머니’ 시즌2에서 3위를 차지하며 주목 받은 스윙스는 ‘쇼미더머니’ 시즌 3, 7, 8의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경연자들을 프로듀싱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해도 본전이였다. 다른 프로듀서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쓴 소리도 들어야 했다.

스윙스는 파워풀한 래핑에 기반을 둔 실력과 별개로 온라인 상에서 적(敵)이 많은 편이다. 본인도 “난 숨만 쉬어도 욕 먹는 래퍼”라고 털어놓았다.

작년에는 ‘인맥 힙합’의 장본인으로 지목 받고, 일부에선 ‘되돌 래퍼’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독심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호의를 얻어냈다.

이와 함께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간 유일한 여성 래퍼인 미란이를 비롯 원슈타인, 쿤디판다, 언텔 등 톱8 모두 기량을 인정 받았다는 것도 이번 시즌에서 주목할 점이었다.

쇼미더머니, 안정적인 힙합 플랫폼되다

‘쇼미더머니’ 시리즈는 지난 2012년 출발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대중음악계에서 비주류였던 힙합을 대중화하겠다는 의도가 좋게 평가 받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활동해온 래퍼들에 대한 푸대접, 정품성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일부 래퍼들은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후 이 시리즈가 흥행하면서 다양한 래퍼



들이 참여를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안팎의 여러 사건으로 여러 구설에도 올랐다.

이번 시즌은 초반에 오원인 대마초 흡입 혐의로 하차한 것 외에는 큰 구설이 없었다.

시청률도 안정적이었다. 지난 10월 16일 첫회 1.1%를 시작으로, 지난 18일 마지막회가 2.1%였다.

경연을 통해 공개된 곡들이 인기 아이돌들의 신곡을 제치고, 음원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국힙’(국내힙합)의 위상을 다시 확인시켰다.

특히 그루비롬이 프로듀싱하고 미란이·먼치맨·쿤디판다·머쉬베놈·저스디스가 함께 부른 ‘VVS’는 각종 음원차트 정상을 질주하기도 했다.

‘영 보스’(우승자)만을 위한 프로젝트 힙합 레이블 론칭, 상금 1억원, 미니 쿠퍼 등 우승 특전이 상당했던 만큼, 사전에 지지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역대 최대 인원인 2만3000명이 지원했다.

힙합계의 관심이 쏠린 만큼, 힙합 역사의 무대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일 세미 파이널에서 스윙스와 사이먼 도미닉의 ‘악역’ 협업 무대가 대표적인 예다.

스윙스와 사이먼 도미닉은 지난 2013년 한국 힙합계 초유의 ‘컨트롤 디스전’에서 서로를 공격했던 사이였다.

그런 두 사람이 가수 이하이와 함께 선보인 화합의 무대는 한국 힙합계 역사를 관통하는 무이었다.

시즌이 이어지다보니, 그루비롬과 저스디스처럼 그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프로듀서들도 합류하며 신선함을 더했다.

반대로, 기리보이처럼 ‘명장 프로듀서’도 탄생하게 됐다. 그는 이번 시즌 포함 세 시즌 연속 우승자를 배출한 프로듀서다.

시즌 7의 우승자 나플라, 시즌 8의 우승자 편지널로도 기리보이 팀이었다.



비X박진영, 사제 간 듀엣 ‘나로 바꾸자’ 31일 공개

가수 비와 박진영이 듀엣을 선보인다.

21일 씨브라임아티스트 에이전시에 따르면 비의 새 앨범 ‘나로 바꾸자(duet with JYP)’는 오는 31일 오후 6시에 각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작곡한 ‘나로 바꾸자’는 강력한 8비트 리듬에 아날로그 사운드를 더한 90년대 대표 댄스 장르로 뉴 잭 스윙의 분위기를 재현한 곡이다.

한 여자를 두고 다투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비와 박진영의 대결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질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 두 사람의 각자의 카리스마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흑백 티저와 대비되는 ‘배틀(BATTLE)’ 문구는 ‘나로 바꾸자’에서 보여줄 두 사람의 치열한 대립을 예고한다.

특히 이번 앨범은 사제 간이기도 한 박진영과 비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98년 그룹 ‘뽕클럽’으로 데뷔한 비는 이후 박진영의 발탁으로 JYP엔터테인먼트에서 2002년 솔로 가수로 나섰다. 당시 ‘나쁜 남자’로 데뷔해 ‘안녕이란 말 대신’, ‘태양을 피하는 방법’, ‘It’s Raining’ 등 박진영이 프로듀싱한 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윤종신, ‘신비한 레코드샵’ MC...장윤정·규현·웬디 호흡

내년 1월에 방송될 예정

가수 윤종신이 JTBC 새 음악 토크쇼 ‘신비한 레코드샵’으로 MC에 복귀한다.

21일 JTBC와 SM C&C STUDIO에 따르면 신규 음악 토크쇼 ‘배달gayo-신비한 레코드샵’이 내년 1월에 방송될 예정이다.

MC로는 윤종신, 장윤정, ‘슈퍼주니어’ 규현, ‘레드벨벳’ 웬디가 확정됐다.

‘이방인’으로 잠시 방송가를 떠나있던 윤종신이 공식적으로 MC로 복귀하는 작품으로 4MC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된다.

‘배달gayo’라는 부제가 더해진 ‘신비한 레코드샵’은 4MC와 함께 공동의 직업으로 묶인 게스트들의 ‘인생 이야기’와 ‘인생곡’을 소개하며 완성하는 음악 예능이다. MC들의 조합도 기대감을 높인다.

윤종신은 한층 깊어진 내면과 음악적 감수성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이 돼 풍성하고 공감되는 ‘음악 예능’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정도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까지 보여준 만큼 MC로서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슈퍼주니어’의 발라드 장인 규현과 ‘레드벨벳’의 음색 여신 웬디도 전 세계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이자, ‘보컬리스트’로서 사랑받고 있는 스타들인 만큼 주목된다.

‘신비한 레코드샵’은 국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세계를 무대로 한 OTT 경험으로 콘텐츠 공급해왔던 SM C&C STUDIO가 JTBC와 처음으로 합작해 만드는 작품이다.



뉴스스

웨이브 올해 최다 시청작은 ‘런닝맨’...‘나 혼자 산다’ 제쳐

올해 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VOD 전체 시청량 조사한 결과

SBS TV 예능 ‘런닝맨’이 올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WAVE)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웨이브는 21일 ‘2020 웨이브어워즈’를 발표했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VOD 전체 시청량을 조사한 결과다.

예능 부문에서 ‘런닝맨’은 지난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MBC TV ‘나 혼자 산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3위는 MBC TV ‘놀면 뭐하니?’가 차지했고, MBC TV ‘무한도전’,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뒤를 이었다.

‘무한도전’은 신규 업데이트가 없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팬이 즐겨보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드라마 부문은 SBS TV ‘낭만닥터 김사부2’가 영예를 안았다. 2위는 SBS TV ‘스토브리그’, 3위는 KBS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로 나타났다. SBS TV ‘펜트하우스’, ‘더 킹 : 영원의 군주’도 순위권에 자리 잡았다.

특히 방영 중인 ‘펜트하우스’는 집계 기간의

불리함에도 4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또 ‘낭만닥터 김사부2’의 큰 인기는 2016년 작품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을 6위로 소환하기도 했다.

구작 인기 프로그램을 모아 제공하는 ‘클래식관’ 최강자는 ‘무한도전’이었다. 2위는 ‘낭만닥터 김사부’, 3위는 KBS 2TV 예능 ‘1박2일’ 시즌1이 랭크됐다.

이외에도 MBC TV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순풍산부인과’,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쌈, 마이웨이’, SBS TV ‘질투의 화신’ 등도 시청량이 많았다.

웨이브가 제공하는 스타별 에디터픽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BTS)으로 가장 많은 구독 하트를 받았다. 해당 에디터픽에서는 방탄소년단 신인 시절부터 출연한 음악방송, 예능 프로그램들을 모아 볼 수 있다.

이어 배우 김수현, 김선호, 지창욱과 김유정, 공유, 주원이 인기가 많았다.

해외시리즈는 ‘FBI’, 아시아드라마는 ‘진정령’이 1위를 차지했다.



웨이브는 23일부터 올해의 인기작을 모아볼 수 있는 ‘2020 웨이브어워즈’ 특별전을 진행한 다.

엑소 백현 “리브송 ‘놀이공원’ 감상 포인트는 가사”

그룹 ‘엑소(EXO)’ 백현의 연말 음악 선물 ‘놀이공원(Amusement Park)’이 21일 공개된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백현의 새 싱글 ‘놀이공원(Amusement Park)’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사이트에서 공개된다. 또 감성적인 매력의 라이브 비디오도 유튜브 및 네이버TV SMTOWN 채널 등을 통해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신곡 ‘놀이공원(Amusement Park)’은 감

미로운 피아노와 기타 선율, 백현의 부드러운 보컬이 조화를 이루는 미디엄 템포 R&B 곡이다. 가사에는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을 놀이공원의 다채로운 풍경에 빗대어 표현했다.

백현은 “감상 포인트는 가사”라며 “마치 정말 놀이공원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몰입감이 더 깊어진다. 밤에 들어도 좋고, 혼자 있을 때 들으면 데이트하는 기분일 것”이라고 소개했다.